

협회동정



정보화사회 자유토론 광장 개최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협회는 지난달 22일 상공회의소에서 「정보화사회 자유토론 광장」을 개최, 각계의 전문가, 정보화사회 추진의 실질적 주역인 산업체 중견중사원들과 장래의 주인공들인 청소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유토론광장은 제1광장, 제2광장, 그리고 특별행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1광장 정보통신산업체 종사자 자유토론광장은 통신공사 서정욱박사의 사회로 정보통신산업 발전환경조성(문영환: 체신부 개방연구단장), 정보통신산업의 현실과 장래 전망(노중호: 쌍용컴퓨터대표 컨설턴트), 정보문화의 창달과 기업활동(김대규: 데이콤 상무)이 발표됐고 업계참석자들의 토론순서에 이어 제2광장 정보화시대를 사는 젊은이들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지상중계 참조)



그리고 특별행사로 금성사, 현대전자, 삼보컴퓨터에서 기증한 컴퓨터, 전화기를 참석자 대상으로 추첨, PC 3대와 전화기 5대가 학생 및 업체종사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갔다.

표준화 추진위원회 구성

한국전자통신연구소, OSIA와 공동으로 전산망표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협회는 이달부터

전산망표준화 연구활동 및 전산망 안전·신뢰성 기준제정연구활동에 참여할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협회의 표준화 연구활동에 참석할 연구위원은 전산관련학을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OSI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한글코드연구에 관련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두 캠페인

협회는 6월 정보문화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정보문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범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해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달 16, 19일 양일간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실시한 가두캠페인에서 정보화사회의 비전, 21세기를 선도하는 직종, 뉴미디어와 국제관계, 국가기간전 산망 성과분석 등을 특집으로한 「정보화사회」를 지나가는 산업체종사자 및 학생들에게 2천5



백여권 배부했다.

또한 대학생들의 정보마인드를 조성하고 다가오는 21세기 문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자 전국 대학 컴퓨터 씨클연합회와 서울시내 소재 각 대학의 방문을

통해 월간 「정보화사회」 2천5백권을 배부했다.

이밖에도 지방에 소재해 있는 각 대학에는 우편으로 발송했다.



4차 회선사용제도 완화조치 설명회

협회는 지난달 19일 한국데이타통신빌딩 상황실에서 정부의 4차 회선사용제도 완화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 최성규 사업부장이 설명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룹 VAN 이용대상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의 정의에 관심을 보였다.